

5) 불화(佛畵)

불화 역시 송광사와 선암사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다음의 것들뿐이다.

(1) 송광사 십육국사진영(十六國師眞影)

원래 국사전에 16국사의 영진이 모셔져 있었으나 1995년 초 대부분 소실되어 현재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영정, 제2세 진각국사(眞覺國師)영정, 제14세 정혜국사(淨慧國師)영정 등 세 폭만이 승보전에 보관 중이다. 영정은 여백이나 장식 없이 국사만을 모시고 있는데 모두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향좌 또는 향우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보조국사는 긴 석장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은 선정인을 하고 몸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며,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녹색의 승기에 녹색의 격자무늬를 댄 가사를 걸치고 나무로 된 의자에 몸을 깊숙히 의지하고 있다. 향좌부상의 붉은 화기난에는 “원력수생해동불일보조국사(願力受生海東佛日普照國師)”라 하여 국사의 명을 기입하였다.

화사(畵師)는 쾌윤(快允)과 복찬(福燦)이며 크기는 가로 77.4cm, 세로 135cm이다. 비단에 채색을 하였고 1780년에 조성되었으며, 1990년 9월 20일에 보물 제1043호로 지정되었다.

(2) 선암사 대각국사진영(大覺國師眞影)

이 영정은 가로 103cm, 세로 127cm로 오른쪽으로 향한 측면상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안면은 연한 살색이며 가는 선으로 윤곽과 이목구비를 표현하였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담채로 되어 있다. 옷은 초록색 범의와 붉은 가사를 걸치고 있는데, 농담의 변화가 없이 몇 개의 선으로 옷주름만을 표시하고 있어 단조롭고 경직된 모습이다. 흑갈색의 의자는 크고 장대하게 그려져 있으나, 의자의 다리와 신발 받침대 등은 불합리한 요소를 보이고 매우 평면적으로 느껴지게 그려져 있다.

영정의 하단에 “가경십년을축칠월중수겸화사도일비구시주성관(嘉慶十年乙丑七月重修兼畵師道日比丘施主成瓣)”이라는 화기가 쓰여 있어 1805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임진년에 너웅혜근(瀨翁惠勤)이 쓴 긴 찬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작품 제작연대와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가사의 접에 묘사된 화려한 문양들은 17세기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수직으로 묘사된 돛자리 등은 19세기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어서 여러 시기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9월 20일에 보물 제 1044호로 지정되었다.

(3) 선암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 掛佛)

입상의 석가모니가 물 가운데 핀 붉은 연꽃 위에서 있으며 원형 두광과 키형 신광에 싸여 있다. 옅은 미색의 피부에 가는 눈썹과 작은 입, 팔자형 콧수염과 나선형의 턱수염을 갖춘 양식화한 도상을 하고 있다. 머리에는 커다란 중간계주와 정상보주가 머리카락과는 대조적인 흰색 바탕에 붉은 줄무늬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삼도는 윤곽선처럼 얇고 희미한 선으로 가슴부위에 표시되어 있다. 우측 어깨를 내놓은 가사는 초록과 빨강 그리고 남색이 복잡한 무늬를 이룬다. 이 무늬대(帶)로 가사의 가장자리와 격자무늬대에 장식하고 있으며, 바탕은 붉은색으로 승각기는 녹색바탕을 이루고 있다.

화면 상단의 향좌에는 10화불이 연꽃잎 모양의 하나의 광배(光背)에 좌세하고 있다. 화불은 좌세나 시선의 방향, 수인에 변화를 주어 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 화불을 감싸 안은 신광 밖에는 파상선 모양과 서운으로 장식하고 있다. 향 우측에는 탑 속에 다보여래가 앉아 있으며, 탑 좌측에는 관음이 구

름 위에 서서 합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등글등글한 괴량감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하단에 넓게 퍼진 천의와 상단에 배치한 십방불(十方佛)과 다보불(多寶佛)의 배치는 서로 대칭을 이루어 화면이 안정감 있게 짝 짜여져 있다. 화면의 바탕이 되는 녹색, 즉 올리브 그린의 색감은 이 괘불의 우수함을 돋보이게 한다.

화사(畫師)는 치한(致閑)·내숙(來淑)·모영(慕英)·특언(特彦)·즉민(卽旻)·월계(月桂)·봉찰(鵬察)·책화(策花)·술탄(戌坦)·쾌혜(快慧)·쾌운·인계(印戒) 등이다. 화면 하단의 중앙과 좌·우에 3개의 불화기가 쓰여 있고, 그림의 뒤쪽에 당시 선암사의 암자와 전각 그리고 각 곳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명단이 쓰여 있으며, 1990년 보수기가 덧붙여 있다. 괘불의 크기는 가로 6.82m, 세로 12.15m이며 비단에 채색을 하였고 1735년에 조성된 것이다.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3건의 불화 이외에도 송광사 30여 점, 선암사 30여 점, 정혜사 1점, 동화사 1점, 향림사 1점, 대승사 1점 등이 있고 동화사에는 후불 벽화가 있다.